

皮膚疾患에 對한 상식

林 善 鎬

韓國學校保健協會 光州·全南 支部長
林皮膚泌尿器科醫院長, 醫博

우리國民들은 發病24時間 以內에 專門醫의 診斷를 받는 先進國사람들과는 다르다. 따라서 先進國에는 이미 사라진 細菌性疾患이 아직도 많이 볼 수 있으나 매우 寒心스럽다. 早期診療는 明年부터 施行된다고 하는 全國民의 의료보험施行과 때를 같이 하여 반드시 實施되도록 政府는 積極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廢風은 어루러기라고 하는데 廢風眞菌(곰팡이)에 의해 傳染된다. 大學入試統計는 5%나 되니 매우 傳染力이 強하고 發生率이 높다. 注射나 內服藥은 無效이며 塗布藥만이 效果가 있다.

속칭 「무좀」이란 말은 手足 特히 발에 發生하는 皮膚病의 總稱이다. 檢診해 보아야 正確한 病名을 알 수 있다. 白·이 가장 많으나 化膿菌의 合併症도 있고 ID反應에 依한 皮膚炎도 있고 其他 不知其數이다. 白·菌은 手足 뿐만 아니라 全身의 皮膚에 發·病한다. 白·은 注射는 效果가 없고 抗眞菌劑의 內服과 塗布로서 完治할 수 있다. 眞菌疾患(곰팡이, 絲狀菌)은 ① 肺, 肝等 內臟을 侵犯하는 種類가 있고 ② 피부침범 ③ 內臟과 피부침범으로 三大別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피부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專의의 早期診療가 必要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음)은 1945~50년에 많이 發生하고 그후에 잠잠하더니만 80年度부터 光州地方부터 再發하여 아직도 發生하고 있는데 이는 早期診斷되면 治療는 塗布藥만으로 간단히 치료된다. 단지 ·腫 피부병 등 合併症도 相當數에서 볼 수 있다.

膿·疹(농가진)은 三種이 있으며 化膿菌에 의한 것인데 治療는 쉽다. 항생제의 주사와 내복약 및 塗布藥과 소독으로 쉬우나 접촉전염이며 감염율이 높으니 발생율이 높다.

접촉성피부염은 화장품, 의복, 목거리, 시계줄, 귀고리, 머리염색, 草本의 잎 등 자기체질에 맞지 않으면 많이 發生하며 알려지성질환인데 일단 항비타민제로 治療하고 그 물질과의 接觸을 피하거나 탈감작治療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俗稱 태열기는 아토피-성피부염, 소아피부염, 濕疹等의 總稱인데 물, 비누 등 자극을 피해야 하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專의의사의 規칙적 診료가 필요한 것이다.

여드름은 심상성좌창이라고 하는데 모낭염, 疥癬 등 합병증이 많고 짜면 흉터가 생기고 커지고 數가 10배로 늘어나니 절대로 안짜야 하며 동물성지방질은 음식물에 있어서 피해야 한다. 물론 자극성이 있는 술이나 커피는 피해야 한다.

유전성질환은 암내, 탈모증, 어린선 등이 많은데 유전인자는 어찌할수 없으나 본인은 암내는 手術로서 大汗腺을 제거하면 되고 탈모증은 治療해도 큰 效果는 없으나 다소 호전되며 어린선은 자연히 약간 호전되고 局所治療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알러지성질환은 담마진(두드러기), 습진, 지루성 피부염, 소양증 등 많은데 그 원인이 되는 抗原을 알아내도록 힘쓰고 抗原이 구명되면 탈감작治療를 받으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